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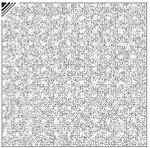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22호

2021년 1월 10일(나해)

주님 세례 축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 이사 42,1-4.6-7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ㄱ-10(㉑ 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

이어!”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르 1,7-11

영성체송 |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죄와 죽음으로 얽혀있는 인간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어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육화의 신비가 이 사건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직후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을 드러내는 하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례는 요한이 예고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선포되고 그로부터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공적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주님의 기도(마태 6,9-15)를 가르쳐 주신 것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마태 28,19)주라는 마지막 사명

수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놀라운 새로움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감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이 근원적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부정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느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하느님 아닌 것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욕망으로 우리의 내면이 몹시 불편하고 일그러져 있을지라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택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습에만 머물지 말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느님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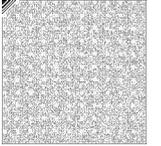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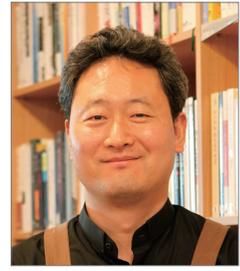
은이성지, 경기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상하이 진자샹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품(1845년 8월 17일)을 받는 모습의 조형물 틈새로 '김대건 기념관'이 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무릎 꿇은 신부님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되돌아봅니다.

김용준 바실리오 | 가톨릭사진가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어느 날 ‘청년밥상 문간’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를 만나고 싶어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기에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는 정신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었기에 청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몹시 마르고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던 청년은 자신의 성소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서 찾아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성소는 바로 불교의 수도자인 승려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는 성소 고민이 아니라 불교의 스님이 되고자 하는 고민이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은 고향인 밀양에서 출가하려고 9개월 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스님을 뽑긴 했지만, 빛이 있어서 출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가톨릭도 같습니다. 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르심의 삶에 전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빛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짐작과는 달리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정도였기에 빛만 없다면 바로 출가할 수 있냐고 물으니 지난 9개월 동안 노숙을 해서 지금 출가하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건강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어 번 일용직 일을 하면서 돈이 생기면 찜질방에서 자고 돈이 떨어지면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쪽잠을 잤다고 하더군요. 저는 노숙을 하는 청년은 처음 만났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어려운 처지의 자신

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고 열아홉 살에 마음을 먹었는데 스물아홉 살이 된 지금 출가할 길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저의 기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라며 빛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식당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머물 숙소를 연결해 주고 노숙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와 많지 않아도 빛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모으면 내년에는 출가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틀 만에 주방장님과 갈등을 빚으며 식당을 그만두었고, 한 달 후 숙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기에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더니 연락을 끊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하며 그때 끝까지 돕고 지지해 주어야 했던 건 아닌지 자책합니다. 제가 그러면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길 바랐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리피 4:6

김민정 소화테레사
수원교구 포일성당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서울주보는 지난 2020년 11월 28일부터 교우들이 궁금해하는 가톨릭 교리 및 교회 상식을 질문받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교리 및 교회 상식을 질문해 주세요! 선정된 질문은 서울주보 코너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게재됩니다. < 참여하실 분은 QR 스캔 및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



이벤트 참여 QR

!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그렇듯, 하느님과 반드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되리라 봅니다. 한편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쉽게 지치잖아요? 지향을 가지고 나의 바람을 아뢰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귀 기울인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더 즐거울 것입니다.

!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는데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을 땐 어찌 해야 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감각적인 것들에 너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매번 보이는 것을 찾으니 말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그냥 음악을 들으면 여러 소음과 섞여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침묵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모으세요. 그렇게 주님께로 향할 때 새의 지저귐, 바람의 움직임, 빗방울의 속삭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편 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 생애를 두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으며 광야를 건넜고, 긴 유배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해 하느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뤄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루카복음 11장 9-13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대화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 기도할 때 자주 다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서는 일생에 딱 한 번 분심 없이 묵주기도를 바쳐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크루즈를 타고 관광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흔들려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였다고요. 농담 같은 말씀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바랄 때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심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며 잔잔해진 내 마음 위로 떠오르는 거겠죠. 물에 떠있는 낙엽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치우려고 휘휘 저으면 고요했던 호수는 물결로 일렁이게 됩니다. 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두세요. 분심이 생겼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분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게 됩니다. 잠시만 그렇게 머무르다 보면 내 마음이 아닌 하느님께로 깊이 잠기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이요.

‘성 요셉의 해’ 선포(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12월 8일(화)에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고,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1년간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님은 이날 발표한 교서 『아버지의 마음』(Patris corde)을 통해 “모든 신자가 성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하느님의 완전한 충실성 안에서 신앙적 삶을 강화하길 바라며”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틀리기도서 109쪽을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1월 10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❶ 정규 미사 봉헌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상 제작 및 송출 인력 포함 20인 가능)
- ❷ 성당 내에서 대면 모임과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는 금지합니다.
- ❸ 성당 밖에서 하는 식사는 자제합니다.

교구청일림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6일(수)~2월2일(화)

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월11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1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1월16일(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명동)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또한 교황청 내사원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에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전대사 교령을 보내왔습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받는 조건 -

전대사의 통상 조건(교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을 채우면서, 아래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실천한다.

(1)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성지와 성당 중에서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 첨부된 희년 주요 행사 중 한 가지에 참여하기
- 또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 바치기

* 서울대교구 교구장 지정 순례 성지(성당): 광희문성지, 주교좌명동대성당, 가회동성당,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지, 새남터순교성지,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절두산순교성지, 종로성당, 종림동약현성당, 동대문성당, 수락산성당, 수유동성당, 신내동성당, 신천동성당, 이문동성당, 한강성당

(2)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기

(3)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기

김대건 신부님과 동갑내기 음악가 프란츠 도플러 *Albert Franz Doppler*



임주빈 모니카_KBS프로듀서, 심의위원

2021년 올해는 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가장 크게 기념할만한 희년입니다.

200년 전 김 신부님 탄생 연도를 기억하다가 같은 해에 클래식 음악계엔 어떤 음악가가 태어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이름을 떠올릴만한 유명 작곡가 중엔 없는 것 같고, 찾아보다 눈에 띈 사람은 프란츠 도플러(Albert Franz Doppler 1821~1883)라는 음악가입니다.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플루티스트로서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대표작으로는 <헝가리 전원 환상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음악을 배운 것은 아버지 요제프 도플러 Joseph Doppler에게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작곡가, 오보이스트로 활동했었고, 프란츠의 네 살 아래 동생인 카를 도플러 Karl Doppler 또한 당대 유명한 플루티스트여서 두 형제가 같이 유럽 전역에서 플루트 연주회를 많이 했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카를 도플러의 아들(Arpad Doppler)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다고 하니 도플러 집안은 3대에 걸친 음악가 집안인 셈이죠.

서양 음악사를 보면 대대로 음악가 집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집안은 잘 아시는 바흐 같이 바흐 집안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의 가문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큰아버지들과 아버지 삼형제가 모두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바흐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 중엔 음악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성공한 음악가가 세 명(빌헬름 프리데만, 카를 임마누엘, 요한 크리스티안)이나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바흐 집안엔 발에 차이는 사람이 음악가라고 할 정도였죠.

또, 우리가 하이든이라고 알고 있는 요제프 하이든 Joseph Haydn은 같은 성씨 ‘하이든’ 아래 미하엘 Michael이라는 이름의 동생 음악가를 두고 있으며,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아버지도 음악가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Johann Strauss 2세도 그 아



알베르트 프란츠 도플러(Albert Franz Doppler) | 플루티스트, 작곡가

버지 1세가 음악가였고, 동생 요제프 Josef Strauss
와 에두아르트 Eduard Strauss 역시 음악가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게 가풍이든 유전자이든, 집
안 내력이라는 것에 대해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김대건 신부님에게로 돌아가 보면 이 가문
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술가 집안의 경우엔 가풍
이라기보다는 재능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
이 든다면, 김대건 신부님 집안 경우엔 증조할아버
지(김진후), 작은할아버지(김종한), 아버지(김제준)에 이
어 김대건 신부님까지 4대에 걸친 순교자 집안이
라는 점, 그것은 그 덕에 흐르던 가풍, 집안 환경
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음악적으로 훌륭한 가문들을 살펴
보다가 내 가정을 돌아봅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도 있는
데, 나는 올해 어떤 행동으로 집안 환경을 만들어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음먹
기와 달리 번번이 실패하는 웃음 띤 얼굴, 부드럽
고 품위 있는 말투를 다짐해봅니다, 또 기부와 봉

사를 통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보려
입니다. 거기에 매일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
습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지요?



프란츠 도플러 <헝가리 전원 환상곡> 감상

이 곡은 플루트와 피아노 2중주로 연주되기도 하고, 플
루트와 오케스트라의 협주곡 형태로 연주되기도 하는
10분 내외의 소품입니다. ‘환상곡(Fantasy)’답게 몽환적,
명상적인 플루트 음색으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전
원’이라는 곡 타이틀에서 짐작하듯 플루트 특유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경쾌하게 연주되죠. 이곡을 듣다 보면 작
곡자인 도플러 자신이 플루티스트였기에 플루트라는 악
기로 연주할 수 있는 기교를 한껏 담아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노들담 교육관 피정(도심 속 고요 피정)

개인, 가족, (중)소규모 맞춤 피정(대관 가능)
 곳: 종로 북촌마을 / 문의: 02)3673-2274, 010-6543-6319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할라산눈꽃피정: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지도: 토마스모어 원장 신부, 품질연구원장 입교수
 때: (금~월) 1월15일~18일, 2월19일~22일, 2월26일~3월1일, 3월12일~15일, 3월26일~29일
 문의: 010-9916-5798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돌아보며 깨닫기 / 문의: 010-3173-2665

돌깨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최영민 신부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예수회)

교육

성인 초등·중학교·교육부 학력 인정(한국여성생활연구원)
 검정고시(초졸·중졸·고졸) 모집,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지도
 곳: 가톨릭회관 522호 / 문의: 02)727-2471(선착순)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예수회센터 여성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심리적 치유와 성숙을 통한 영적 여정(신설)	매주(화) 14시~16시	신선미 선생
그리스도교의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영신수련 정기 강좌	매주(수) 10시~12시	이규성 신부
여성 심리와 영성	매주(수) 10시~12시	홍기영 교수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금) 14시~16시	전주희 수사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실시간 영상 강의(ZOOM) 매주(목) 14시~16시	권오면 신부

모임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문의: 010-9720-7015 성소 담당

2021년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38-7831
 대상: 현재 9세~12세 가톨릭(예비)신자
 연습: (화) 18시, (일) 13시 / 접수: 신청서 이메일 발송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참조
 연습재개 및 오디션 일시 개별 연락

인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성가정임업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fca.or.kr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렐자비의수녀회)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가족 갈등

여성 전화 상담	(월~금)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은 문의 바람	문의: 02)990-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일-강의 3월4일부터 매주(목) 10시~12시, 그룹훈련 기본과정-13시~15시, 금요일-3월 5일부터 매주(금) 비대면 온라인 강의
생활 속의 심리학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학 기초이론-3월4일~4월15일 매주(목) 7주 과정
사목상담	대상-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 10시~12시·13시~16시 / 무료 10회기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직원모집

명동대성당 미화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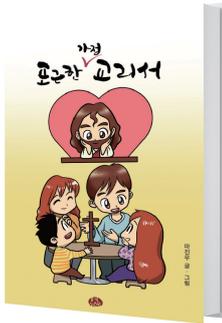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청소 담당 미화원 1명(계약직) / 이메일(mdxcca@catholic.or.kr) 문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타 교구 신자는 주임신부추천서)
 1월17일(일) 오후 6시까지 사무실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1월17일(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사당동성당 주간 관리인(계약직) 모집

분야: 주간 방호원(계약직) 1명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신자로 신체 건강하신 분(1종 운전면허 자격증 필수)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채용 희망일: 2월1일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후 면접)
 1월22일까지 방문·우편(우 07014,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3길9(사당동)) 및 이메일(sdcatholic@naver.com)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월17일(일)	본원(미아리)	010-9816-0072(pddm.or.kr)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16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2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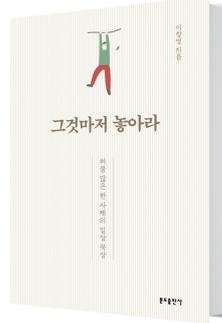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포근한 가정 교리서

마진우 지음
도서출판 벽난로 | 188쪽 | 1만원
문의: 02)582-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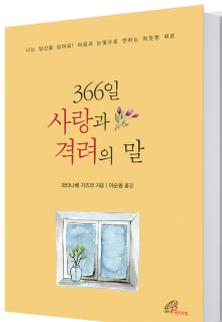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복음화를 담당하는 마진우 신부가 직접 그린 만화로 첫 신앙 교리서를 펴냈다. 사도신경, 7성사, 십계명, 자비 실천 항목을 쉽게 설명하였고, 행동이 따르는 산 신앙이 되도록 각 내용을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로 구성했다.



신간
그것마저 놓아라

이창영 지음
분도출판사 | 192쪽 | 1만5천원
문의: 02)2266-3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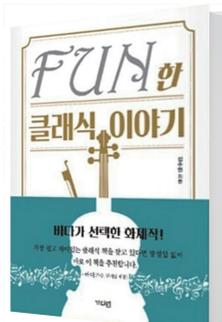
대구대교구 만촌1동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이창영 신부의 묵상집이다. 복음 말씀을 일상 사건이나 우화와 연결 지어 알기 쉽게 풀이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다.



신간
366일 사랑과 격려의 말

와타나베 가즈코 지음
바오로딸 | 400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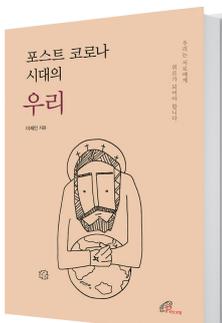
저자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 쓴 9권의 책에서 문구를 발췌하여 엮은 책이다. 코로나19 일상이 무너지며 갈 길을 잃은 사람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지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희망과 사랑,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글로 이뤄져 있다.



신간
Fun 한 클래식 이야기

김수연 지음
가디언 출판사 | 214쪽 | 1만4천8백원
문의: 070-4032-2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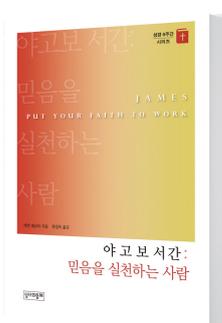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가톨릭튜브'의 <클라우디아의 클래식 뮤직> 이 책으로 나왔다. 클래식 입문자들을 위한 클래식 이야기로 작곡가들의 삶과 클래식에서 만났던 연주의 영상을 책 속에 담았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앞세워 클래식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이제민 지음
바오로딸 | 228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목을 준비하는 책이다. 마산교구 이제민 신부가 2020년 6월 안동교구 사제 피정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목자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신간
야고보 서간: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케빈페로타 지음
성서와함께 | 132쪽 | 1만원
문의: 02)822-0125

야고보는 무엇보다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 책은 6주 동안 야고보 서간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구유·트리·꽃장식 봉헌해주신 분들 ❖

(집수기간 : 11월 21일 ~ 12월 30일)

성탄봉헌금 총액 : 9,720,000원

익명	: 500,000원	도순남	: 500,000원
김돌	: 360,000원	김국원	: 360,000원
변형규	: 360,000원	김연화	: 250,000원
장혜영	: 200,000원	익명	: 200,000원
전중구	: 200,000원	김부연	: 200,000원
오명진	: 200,000원	김진희	: 200,000원
박계환	: 200,000원	김영애	: 200,000원
익명	: 180,000원	조정희	: 150,000원
익명	: 120,000원	익명	: 100,000원
신인선	: 100,000원	신문영	: 100,000원
익명	: 100,000원	천순이	: 100,000원
박연선	: 100,000원	이주영	: 100,000원
정경숙	: 100,000원	조유리	: 100,000원
이윤성	: 100,000원	김기열	: 100,000원
최지영	: 100,000원	이현	: 100,000원
김민주	: 100,000원	김정호	: 100,000원
정혜영	: 100,000원	김인영	: 100,000원
김성하	: 100,000원	이은실	: 100,000원
김보람	: 100,000원	손주희	: 100,000원
전구호	: 100,000원	조경수	: 100,000원
성진주	: 100,000원	본당내회	: 100,000원
최정숙	: 100,000원	전재호	: 100,000원
최효원	: 100,000원	최희순	: 100,000원
김시우	: 100,000원	이지원	: 100,000원
나현채	: 50,000원	김영진	: 50,000원
권익란	: 50,000원	익명	: 50,000원
김화영	: 50,000원	전용남	: 50,000원
용경희	: 50,000원	박경연	: 50,000원
신은영	: 50,000원	김동호	: 50,000원
황순이	: 50,000원	김명자	: 50,000원
김관수	: 50,000원	김정수	: 50,000원
김노성	: 50,000원	주영옥	: 50,000원
임춘희	: 50,000원	강영자	: 50,000원
정은미	: 50,000원	백우현	: 50,000원
석지윤	: 50,000원	이상현	: 50,000원
윤숙향	: 50,000원	서민제	: 50,000원
익명	: 50,000원	이미경	: 50,000원
익명	: 50,000원	최진욱	: 50,000원
방지영	: 50,000원	남경민	: 50,000원
박상현	: 50,000원	익명	: 50,000원
이란희	: 50,000원	익명	: 50,000원
최윤진	: 50,000원	이민영	: 50,000원
익명	: 40,000원	송옥진	: 30,000원
한주완	: 30,000원	조성지	: 30,000원
임연빈	: 30,000원	전순삼	: 30,000원
김태남	: 30,000원	주아네스	: 30,000원
이재예	: 30,000원	오해원	: 30,000원
이경선	: 20,000원	이영숙	: 20,000원
이보혜	: 20,000원	익명	: 10,000원
익명	: 10,000원	백미숙	: 10,000원
최윤정	: 10,000원	손대일	: 10,000원
정미숙	: 5,000원	지상철	: 5,000원
지문희	: 5,000원	지서희	: 5,000원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2월 21일 ~ 12월 31일 : 5,350,000원)

2020년도 누계 : 1,615,035,135원

기부진시 총 누계 : 1,890,404,758원

익명	: 1,200,000원	익명	: 1,200,000원
익명	: 1,200,000원	익명	: 1,200,000원
장임순	: 200,000원	김성환	: 150,000원
오대숙	: 150,000원	전수현	: 5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임시 조정 (12월 8일부터 적용)

요일	근무시간	비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토요일		[12:00~13: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2020.10.20.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외부활동 건강수칙



기본수칙

-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모임·여행 자제하기
-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기
- 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밀집된 장소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방문 시 음식 섭취 자제 및 짧은 시간 머무르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고,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
-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큰소리로 대화, 노래 등 자제하기
- 음식은 나눠먹지 않고, 식기류·수건 등은 개별로 사용하기

증상 발생 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울) 신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미사 참례 지침

2020년 12월 8일(화)부터 1월 17일(주일)까지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한 참여 인원을 '수도자·명동 교적자에 한해 15명으로 제한'합니다.
· 사무실 내방 접수(09:00~17:00)만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시 신청 가능하였어도 선착순 내방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사무실 도착하셨을 때 원하시는 미사의 참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및 온라인 신청 불가)
· 평일미사 참석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평일과 주일, 미사 참석을 사전 접수하신 분들께서는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입당하셔야 합니다.
· 평일미사 참석 신청은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7시 미사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미사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주일미사 참석 신청은 '목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본당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주보에 안내된 내용들은 발행일 이후 급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사목협의회 제 단체 정기 감사

본당 사목협의회 제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감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오니 결산 자료를 구비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 본당 모든 단체 (※자체 운영 단체도 포함)

- 제출서류 : ① 수입지출 현황 명세서
② 장부 사진(19년 12월 & 20년 12월)
③ 통장 사진(19년 12월 & 20년 12월)

·제출기한 : 1월 17일(주일)까지

·제 출 처 : psw0424@hanmail.net

◎ 명동대성당 미화원 모집

·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서
청소 담당계약직 미화원 1명

- 서류 : ① 천주교 서울대교구 본당 입사지원서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에서 다운로드)
②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타 교구 신자는 '주임사제추천서'로 대체)
③ 교적증명서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 : 1월 17일(주일) 오후 6시까지
사무실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1월 17일(주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전화문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 명동대성당 미사시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2020년도 본당 미사에물 금액 공시

지난 한 해 교우 여러분께서 본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신 생미사·연미사·합동위령미사 지향 예물금액 407,997,000원을 서울대교구로 송금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서울대교구 특수사목 사제들과 은퇴하신 원로 사제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2021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입

어려운시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어 2021년도 교무금 책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본당 신년 달력과 가정기도문 책자를 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28-1/3).....58,908,000
- 구유예물 (12/28-1/3).....5,609,00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헌금.....1,483,000
- 주님 공현 대축일 헌금.....3,174,000
- 감사헌금 (12/28-1/3).....4,136,000
권 베로니카 / 김 베로니카 / 김 소화데레사
김 에스테르 / 김 헬레나 / 도 로사
민 소화데레사 / 박 세레나 / 박 소화데레사
박 앙브로시오 / 석 카타리나 / 성 데레사
유 베네딕토 / 윤 로사리아 / 이 로사리아
이 사라 / 이 요셉 / 임 사무엘
진 아벨로니아 / 진 크리스티나 / 차 아녜스
하 바틸다 / 홍 가타리나 / 황 김 율리에따
황 힐데가르트 / 문상혁 / 익명(1)